

##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 나눔 실천한 담양군 직원, 지역사회에 감동 꾸준한 헌혈 이어온 정회근 씨, 혈액암 환자에 새 삶 선물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회근(26) 씨가 올해 상반기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액암 환자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무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워 국내 등록 기증희망자 중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 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9회에 걸쳐 헌혈을 이어오며 꾸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역시 오랜 나

눔의 연장선으로,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정 씨는 "기증 전에는 건강 회복이나 후유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검사를 통해 기증 후 일정 회복 기간을 거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증 이후에도 정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평소처럼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따뜻한 실천이 동료들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라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양/이종욱 기자



재경강진읍향우회, 150만 원 기부로 고향 사랑 실천  
갈대축제 맞아 향우 뜻 모아, 지역발전협의회-강진읍에 전달

재경 강진읍 향우회(회장 손병수)가 지난 25일 '제 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막식에 맞춰 고향을 방문해 향우들의 뜻을 모아 총 150만원을 기부했다.

이 중 100만 원은 강진읍 지역발전협의회에, 50만 원은 강진읍에 기부해 향후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중요한 발돋움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향우회의 지속적으로 펼쳐온 사회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강진읍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뜻깊은 나눔이다.

손병수 재경강진읍향우회 회장은 “이번 기부가 강진읍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향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장복 강진읍장은 “향우회에서 보내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금은 강진읍의 다양한 발전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 강진읍 향우회는 지난 청자축제에서도 150만원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강진읍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생생한 매력 전국에 알린다 SNS 인플루언서 초청 1박 2일 팸투어 성료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에 방문한 인플루언서들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생생한 후기를 전하며 함평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

함평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플루언서 10여 명을 초청해 '2025 함평 관광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대한민국 대표 가을축제인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하여 추진됐으며, 참가자들은 함평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홍보 했다.

팸투어 코스는 ▲다채로운 국화 조형물이 전시된 함평엑스포공원 국향대전 관람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돌머리 해수욕장 탐방 등으로 구성돼, 자연과 전통, 맛이 어우러진 풍성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함평군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와 의견을 향후 관광정책 및 홍보전략에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광 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뿐 아니라 곧 개최될 '함평 겨울빛축제'를 함께 홍보하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함평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사계절 축제의 도시 함평다운 특별한 여정을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콘텐츠를 통해 함평의 매력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나주시 노안면, '행복한 버팀목'으로 안전을 선물하다 노안면지사협, 취약계층 18가구에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호평'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문혜인·김설매, 이하 노안면지사협)는 최근 '행복한 버팀목(안전 손잡이)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 안전 환경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안면지사협이 정기회의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18가구를 선정해 진행했다.

노안면지사협은 선정된 가구의 욕실, 거실, 현관 등 낙상 위험이 큰 구역에 기동

형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자들은 “몸이 불편해 이동이 쉽지 않았는데 손잡이를 설치해 주니 안심이다”며 “작은 배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설매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을 지켜드리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혜인 노안면장은 “안전 손잡이 하나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안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보성군, '행복을 전하는 밑반찬 나눔 & 마음 살핌 봉사' 추진 '피져라~ 자원봉사! 커져라~ 온기 나눔!' 캠페인 전개

보성군은 지난 28일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미숙) 회원 20여 명이 별교자원봉사센터에서 '2025년 전라남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을 전하는 밑반찬 나눔 & 마음 살핌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자들은 결집외와 잡채 등 밑반찬 2종을 조리해 지역 내 취약계층 50가정에 전달하고, 세대별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피져라 자원봉사, 커져라 온기 나눔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이웃 간 온정이 퍼지는 따뜻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김미숙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늘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이웃 간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사람의 김장나눔 릴레이'를 전개해 취약계층 돌봄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 살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